

# “남원 신관사또가 전국에 부임합니다”

남원시·관광협의회, 가을 관광객 유치 고속도로 홍보 나서  
10월까지 화려한 복장·취타대 연주 등 감성 사로잡기 전략

“남원 신관사또가 전국에 부임합니다.”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의회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 고속도로 관광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홍보활동은 가을 관광홍보 브랜드인 ‘여백이 있는 소풍, 남원의 가을로 초대!’ 라는 이미지 브랜드를 집중 홍보해 전국 여행자들의 감성을 사로 잡기 위한 전략이다.

시의 대표 관광홍보단인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이 화려한 복장과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를 선보이며 포토존과 관광홍보물 배부 등 차별화된 이벤트로 가을 단풍철 관광객을 유인한다.

특히 지리산 뱀사골 단풍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지리산 들레길, 대하소설 혼불의 무대인 서도역 등 가을 감성을 만족시키는 관광테마를 소개하고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과, 제26회 흥부제, 상설 전통문화체험, 남원 스탬프 투어, 카드 1장으로 누리는 행복 전라북도 투어패스카드 등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한다.

추천전을 표준공연물로 각색한 시의 대표 관광효자상품인 신관사또부임행차 상

설공연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하반기 공연을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상설공연과 함께 여름휴가



화려한 복장을 한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취타대의 연주를 선보이며 관광도시 남원을 홍보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철 특별공연과 칠월칠석 포토존, 타지역 홍보공연 등을 운영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남원시 관광과 관계자는 “남원이 가진 생태와 문화자원을 조화한 계절별 감성 관광상품을 발굴 지속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 명소로 관광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

다”고 말했다.

한편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팀은 하반기에도 전국체전 성화봉송행사(10월), 거제섬꽃축제(10월),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12월)에 초청·홍보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회’ 개최

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14일 소성면 대동마을에서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회’를 개최했다. <사진>

특히 이번 환영회에는 2017년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한 ‘북한이탈주민 귀농귀촌학교’ 수료생으로 일가족 3명이 전입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환영회는 남북하나재단 영농지원팀장,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정읍시이통장협의회회장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참석해 귀농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환영행사는 마을이 주축하고, 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와 지역별 5개 지부가 지원했다.

주민과 귀농인들은 이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며 귀농인을 격려하

고 귀농 선배들이 자신들의 경험 사례 등을 들려줬다.

송금하 대동마을 이장은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어려운 결단으로 농촌마을에 귀농한 분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환 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장은 “귀농귀촌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농사정보의 부재로 상호교류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귀농귀촌인들의 지속적인 교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내장산국립공원 ‘갯바위’ 탐방로 예약제 시행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20일부터 11월18일까지 ‘갯바위<사진>’ 일대를 대상으로 탐방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탐방예약제는 내장산국립공원 ‘은선동 삼거리-갯바위’로 가는 양방향 6.3km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백암사무소 측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3만3019㎡ 면적의 입암산성과 습지 등 3개 지역 자연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갯바위 일대 탐방은 국립공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된 탐방객만 출입이 허용된다.

수용인원은 평일 400명, 주말·공휴일은 1200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인터넷 예약자가 미달될 경우에만 공무원사무소에



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현장 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노용 백암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내장산국립공원 갯바위 일원은 특별보호구역과 역사·문화자원이 상존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추석연휴 무료 개방

순창군은 추석 연휴 기간에 강천산 군립공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23~25일 무료로 개방하고 대체휴무일인 26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한다.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도록 21일까지 관리사무소, 상가, 주차장 주변 환경 정비와 산책로, 주

요 등산로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천산은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운다.

순창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 고창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속도낸다

축구장 등 사업비 총149억 투입  
수월·월암마을 주민설명회 가져

고창군이 주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통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3일 고창읍 수월·월암마을 주민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사업추진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 기본계획(안) 내용을 알리고 보상절차 안내 등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군은 총 1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구장 1면과 생활체육시설 전용구장,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체육(어린이)공원 등 7만8000㎡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확보된 토지매입비로 보상 완료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0년에 스포츠타운을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고창군 관계자들이 고창읍 수월·월암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창군이 더욱 탄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어 동·하계 전지훈련장소 및 국내·외 대회 유

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모, 군민 건강증진 향상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총력  
건설공사 20곳 등 감사 강화

익산시는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익산시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20개소와 도로굴착현장 14개소를 대상으로 3분기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현장감사를 통해 보안시공 8건, 기술지도 20건, 안전시설 보강 1건 등을 지도·개선했다.

시는 감사담당관 기술감사 공무원과 민간전문 기술사 등 총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분기별 현장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장감사를 통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실태, 가설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 공사장 안전대책 전반관리 실태, 주민통행 불편 및 위험발생여부, 설계서와 실제 시공의 일치여부, 설계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감독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